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말씀 : 에베소서 2:1-22

요절 : 에베소서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사이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사탄이 역사하는 빌미가 되어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서 성도 상호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며 참된 교회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주안에서 한 새 사람들이 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죽었던 자를 살리신 예수님(1-10)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3절에는 ‘너희’와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으로서 자아 발견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1~3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참담한 상태를 묘사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종노릇하였다는 것이며, 셋째는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이란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하고, 죄란 ‘표적을 빗나감’ 또는 ‘표준에 미달’ 되는 것으로서 폐기처분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도에서 이탈했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달되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롬 3:19).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뿌리가 잘린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잎이 달리고 꽃도 피어 있을 지라도 그것은 죽어가고 있는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영적 죽음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접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선택을 좌우하는 것으로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6).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영적 죽음은 세상의 모든 수단과 비책으로도 치유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 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24,25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영적으로 살아나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과거 그들은 사탄의 종노릇하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회 전체의 가치 체계를 의미합니다. 세상 풍속은 언제나 물질적이고 정욕적이며 이성의 자량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과거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습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자입니다. 세상의 악과 부패와 폭력의 이면에는 이를 조종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없는 세력에 이끌려 울부짖으며 고통하였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되는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대학에 들어온 것은 아닌데, 아냐 이런 아냐” 하면서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세력에 이끌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으며, 우리는 마귀의 소유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까지 깊이 침투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사탄보다 더 강한 세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십니다(막 3:27). 복음서에 보면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고 전횡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3절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들과 꼭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적으로 진노의 대상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육체의 욕심은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 본성을 의미합니다. 육식에 대한 욕망은 폭식이고, 잠에 대한 욕망은 태만이고, 성에 대한 욕망은 정욕이고, 물질에 대한 욕망은 물욕이고, 명예에 대한 욕망은 명예욕입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탐욕의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 대통령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탐욕으로 더 가지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탐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롬 10:3,4). 그러나 바울은 그들도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로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내 속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쉽습니다. 특히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고 양심을 좇아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일수록 자기 의를 내세우기 쉽습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자기가 비참한 죄인인 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과 같이 성실하게 산 사람일수록 자기 의가 강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

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인가,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으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1~3절은 로마서 말씀이 대자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롬 3:9).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포합니다(롬 3:10-12). 이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전 과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좇았고 사탄의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상기시킨 후,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4,5절 보십시오. “금줄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4절은 헬라어 원문에 “그러나”(But)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반전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반전은 바로 하나님의 금줄이 나타난 것입니다. 금줄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을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사랑으로 진노의 자녀들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주관적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롬 6:4,5).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 새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면, 일으키심을 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새 영역으로 들어 올리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영역에서 건져내사 하늘의 영역으로 옮기신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는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 영광에 동참시키신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만큼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금줄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한 놀라운 금줄과 사랑을 인하여 감사 찬양합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일은 받은 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신앙 간증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은혜가 됩니다. 신앙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틈나는 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 넘치게 되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됩니다.

8,9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

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인간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구원이 우리의 선행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는 인간의 의를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만일 구원이 행함으로 의해서 얻는 것이라면,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의를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 얻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임을 말해줍니다. 선한 일은 구원의 근거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선입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3:4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여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솔학기 생명을 살리는 일, 매일 공부, 생명을 살리는 가솔수양회로 적극 양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I.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리(11-18)

11a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이방인 성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또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과거의 비참한 시절입니다. 이런 비참한 시절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힘겹고 괴로운 일입니다. 이번 가솔수양회를 위해서 인생소감을 자원함으로 한다고 했더니 유일하게 한사람만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과거를 떠올리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들여다 보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없었던 과거의 비참한 시절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근본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은 자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의 슬픔, 비참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금줄을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이로 말미암아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더욱 생생히 깨닫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를 잊어버리는 ‘과거망각증’은 영적 타락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신8:2a). 이스라엘이 광야의 목마르고 배고프고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만 있으면, 가나안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과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먼저 그 때에 이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무시하였습니다. ‘이방인’이란 영적 무지와 우상숭배의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이 교도들에 대한 경멸적 호칭으로 유대인들의 최대의 욕설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식’이었습니다.

12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진 영적 특권에 비추어 이방인들의 불행한 과거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12a). 1,2장의 모든 선명한 축복들, 구원의 선물, 변화된 새 삶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므로, 이 모든

축복에서 제외된 운명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 성도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찾아 왔습니까?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피로’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피로’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1:7절에서 ‘그리스도의 피’에는 속량 곧 죄 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에는 이런 죄 사함의 능력 뿐만 아니라 가까워지게 하는 능력, 곧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이니 살아가는 산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 관계를 청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중적 소외문제와 적대감이 단번에 해결되고 매우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진실되게 믿을 때 멀어진 관계가 단번에 해소 되고 매우 가까워지게 됩니다.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14절은 이방인 성도들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근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14a).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에, 그의 피를 믿는 자들이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4-18절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평화, 화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로서 1:2절의 살름, 평강과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내적인 평화보다는 불화나 적대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평보다는 평화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원문에는 그리스도가 대문자로 강조되어 맨 앞에 나온다고 평화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어,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NAS가 For He Himself is our peace로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실로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상이나 이념이나 체제, 종교로도 오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힘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평화는 문제를 덮어둔 위장된 평화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옵니다. 가정과 교회의 평화, 교회의 평화도 한 분 그리스도로 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해묵은 갈등과 원수 관계를 청산하는 것도 우리의 평화이신 한 분 그리스도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까?

첫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14b).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은 동격으로 같은 의미를 말해줍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지옥불의 뿔장로 쓰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산모가 산통을 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불쏘시개가 세상에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한다면 그 날은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귀는 순간 죽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인사도 안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교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파괴하고 이방인 세리와 같이 식사하자 당장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마11:19; 눅7:34).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이런 적대적인 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적개심과 미움의 담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인종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오만과 편견과 질투와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 서로 간에 원한을 쌓고 분열과 분리의 담들을 쌓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의 한결같은 특징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됩니까? 딤후3:3절에는 종말시대 성도들의 특징으로 원통함, 섭섭함을 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용서치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 얼마나 갈등하고 고통합니까?

이러한 갈등과 적개심은 법이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을 단번에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적개심과 분열과 분리의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시대 검투사 경기는 둘중 한명이 죽어야만 끝나는 잔혹한 경기였습니다. 피가 튀고 목이 잘리고 잔혹하기가 그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검투경기가 왜 중단되었는지 아십니까?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막에서 수도하던 중 로마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성에 순종해서 왔다가 원형경기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피로 물든 경기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왜 로마로 가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흥분한 검투장에 뛰어들어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은 중단될 지어다” 사람들은 이 경기를 보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주 최측에서 준비한 이벤트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계속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은 중단될 지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검투경기가 중단되자 관중들의 야유가 시작되었고 주최측은 텔레마쿠스를 먼저 죽이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텔레마쿠스는 피를 흘리며 다시한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싸움은 중단되어야 합니다”를 외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텔레마쿠스 수도사의 죽음을 보고 그때서야 그 시끄럽던 경기장이 일순간 조용해 집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참관중이던 호세리우스 황제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경기장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자 운집해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 둘 경기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던 검투사 경기는 이 수도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중단이 되어지고 맙니다. 적개심과 분열과 분리의 역사가 중단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개심 분열과 분리의 역사가 무한 반복되는 우리 인간의 역사속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있는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갈등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용서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이 용서의 기도 앞에 녹아나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영접할 때만이 마음에 어리진 분노와 적개심의 높은 담들이 무너져 내리고, 참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해묵은 높은 담들이 있습니까? 부모와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동역자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높은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15a). 율법에는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할례와 희생제사, 그리고 음식에 관한 규제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덕법은 살인, 간음, 탐심 등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이 볼 때 이방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과 속이 다른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 사이에는 적대감만 커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벌려 놓는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없애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의식법과 도덕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간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키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15b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는(하나, so that)’은 앞서 행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이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어(create)’라는 말은 ‘창조하다’는 뜻으로 개조나 개선의 뜻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신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의해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한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닌 전혀 다른 인류,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새 사람, 새 인류는 기독교 공동체인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을 분열시키는 모든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구별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10,11절은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옛 인류의 특성이 분열과 불화와 다툼이라면, 새 인류의 특징은 하나됨과 화해와 평화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만드신 고귀한 ‘한 새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들은 분열과 다툼과 불화와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장 아름답게 지키는 일입니다.

넷째,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16절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까지 바울은 사람끼리의 수평적 화목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과의 화목, 곧 수직적 화목을 말합니다. 14절에서 ‘사람끼리의 원수된 것’이 자기 육체로 허물어졌다면, 16절의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관계가 허물어지고 소멸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바울이 하나님과의 화목 이전에, 사람과의 화목 곧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화목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한 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화목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과의 화목 이전에 사람과의 화목을 먼저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인간끼리의 화목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근본이겠지만, 때론 하나님과의 화목도 짙만큼 강력한 것이 인간끼리의 불화입니다. 실로 인간끼리의 화목없이 하나님과의 화목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5:23,24절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예를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 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를 드리라” 이 말씀은 예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형제와의 화목임을 말해줍니다. 형제와의 화목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대상이 누구이건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영적 생명도 갇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깨져서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

이라” 먼 데 있는 이방인이거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는데 이는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사이좋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III. 성전이 되어가고(19-22)

19-22절은 주 안에서 변화된 이방인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까?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핵인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인(외부 사람들, 외국인들)도 아니요, 나그네(영주권자)도 아닙니다. 이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곧 동료 시민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시민권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가집니다.

또 하나님의 권속(God's family)이란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한 식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둘러 앉아 한술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외인이요, 나그네로서 유대인과 한 식탁 자리에 앉지도 못하던 이들이 한 식구로서 영접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천지가 진동할만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20~2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먼저 20절을 이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임을 말합니다. 이 ‘터’는 교회의 터로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이들이 전파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전파한 복음이 교회의 영적 토대입니다.

이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모퉁잇돌이 되십니다. 모퉁잇돌은 초석으로서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돌을 말합니다. 이 돌은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커다란 돌로서 전체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고, 동시에 벽돌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성전의 모퉁잇돌로서 교회의 기초를 형성하고, 형태를 결정짓는 뿐 아니라 이 돌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 갑니다

22절은 아직 미완성의 성전으로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이라는 장소적인 공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새 성전을 건설하셨고, 우리 몸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고전 3:16). 오늘날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이 아닌 자기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과거 에베소 이방인 성도들은 외인이요 나그네로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평케 하는 한 새 사람으로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들은 성전을 멀리서 바라만 볼 뿐 들어가지도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성전의 일부로 편입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영적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랄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일치와 화해를 통해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하나님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된 한 새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합심동역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종들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